

# 민수의 밝은 웃음 그려봅니다

## 민수 돕기에 달마도 보시한 일허 스님



백혈병 민수를 돕기 위해 본사에 직접 그린 달마도를 기증하기로 한 일허 스님. 스님은 달마도에 모든 정성을 쏟아 민수의 완쾌를 기원하고 있다.

급성 백혈병 환자 민수(4)는 7월 21일 오랜만에 병원 침대를 털고 일어났다. 입원 중이던 부산대학병원으로부터 3일 동안 외출을 해도 좋다는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민수는 아버지 김형찬씨가 기다리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을 생각하며 들떴다.

그러나 민수는 곧 병원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3차 항암 약물치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또 다시 이어지는 치료. 현재 민수는 어린 몸에 주사바늘을 4개나 꽂고 계속 생겨나는 암세포와 떨어지고 있는 백혈구 수치 때문에 힘겨운 투병 생활

을 하고 있다.

본지의 '급성백혈병 어린이 민수 돕기' 캠페인과 보도를 통해 민수의 상황을 접한 독자들이 관심과 격려를 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스님이 "꼭 민수를 돕고 싶다"는 뜻을 본지에 전달했다.

민수에게 '힘'이 되고자 원력을 세운 주인공은 밀양 영전암 주지 일허 스님. 스님은 자신의 '특기'로 민수의 치료비를 모으는데 힘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민수를 알게 된 것은 본지의 보도를 통해서였다. 뛰어놀면서 부모에게 한창 때를 쓸 나이의 아이가 낫기 힘든 병에 걸렸다는 사

실이 스님에게는 무척 마음 아픈 일이다. 스님은 현재 한성대에서 복지행정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복지맨'. 사활 주지에 공부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님은 틈틈이 자신만의 '특기'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달마도'. 스님은 민수 돕기에 달마도 100장(1차분을 내놓았다).

스님이 달마도를 본격적으로 그리게 된 것은 1997년. 운곡 강장원 선생에게 달마도를 배우면서부터다. 이전부터 글씨와 그림을 좋아했던 스님이었지만 운곡 선생에게 그림을 사사받으면서는 달마도만 그리게 됐다.

"달마도를 그리면서 온 마음을 집중하니, 이게 바로 수행자의 일이라구 싶었어요." 달마도만 그린 지 8년. 스님은 자신만의 달마도를 그리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달마에 몰두해왔다. 그러다보니 하루에 수십장을 그려도 마음에 드는 작품은 고작 두서너 장 정도다.

일허 스님이 그린 달마도는 섬세하고도 힘찬 붓놀림에 달마도의 백미인 형형한 눈빛이 살아있다는 평이다. 또 정성들여 붓을 움직인 덕분에 단아한 느낌까지도 든다.

그렇게 배우고 단련해온 달마도를 스님은 이제 민수를 위해 쓰려고 한다. 지금까지 수십점이 그려왔다면 이제는 세상을 위해 내놓을 때가 됐다는 것이 스님의 신념이다.

"꾸준히 연마해온 달마도로 아픈 아이를 도울 수 있게 되다니, 내가 달마도를 배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스님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다. '작은 힘' 이나마 보태고 싶어 시작하는 일인데 자신이 '무명(無名)'이라 아이를 돕는

###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일허 스님의 달마도는 35×45cm 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전달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는 본지나 일허 스님에게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 (현대불교)

###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지금까지 갖고 묶은 마음만큼은 부끄럽지 않다"며 민수 돕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을 확고히 전했다.

한편 민수돕기 달마도를 그리기 위해 서울 작업실까지 마련한 스님의 정성어린 마음에 민수 아버지 김형찬씨는 "여러분들께서 민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가운데 스님께라도 아이를 위해 소중한 그림을 내놓으셔서 무척 감사하다"며 "후원해주신 만큼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살펴볼게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할머니, 기분 좋으시죠?" 8월 11일 치매 할머니들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있는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 목욕봉사자들. 정적 봉사자들은 땀으로 목욕을 하고 있다.

###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 목욕봉사팀

## "할머니 비누 냄새 참 좋죠?"

"놔라, 놔! 나 좀 그냥 놔두라니까!"

8월 11일 서울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소장 정희경, 집박까지 들리는 할머니의 고함소리가 심상치 않다. 그러나 소리와는 다르게 센터 안은 향긋한 비누 냄새로 가득 찼다.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도 맑은 모습이다.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의 목요일은 15명 입소 할머니들의 '목욕 날'이다. 여기에 맞춰 할머니들에게 기꺼이 자신들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 구슬땀이 흘러내리는 자신의 몸을 닦을 새도 없이 할머니들 몸을 씻겨드리기에 바쁜 이들. 치매단기보호센터 목욕 봉사팀이다.

치매 할머니들의 목욕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 할머니는 피부가 너무 약해 만지기만 해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다. 또 어느 할머니는 옷 벗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할머니들 상태가 천태만상이라 애정을 갖고 할머니들을 살펴볼지 않으면 자칫 실수하기도 쉽다. 그러나 봉사자들은 어느새 숙련됐다. 3년 세월 덕분이다.

그러나 숙련된 봉사자들도 할머니들이 이를 악물고 버틸 때는 방법이 없다. 봉사자 4명이 한 사람 씻기기도

힘들다.

"만 건 힘든 거 없어요. 할머니들이 좀 덜 꼬집어 주셨으면 좋았는데, 부탁해도 안 들어주시네요."

3년 좀 봉사하다 보니, 몸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봉사자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친정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겪은 이재화(53) 보살은 "어르신들을 씻겨 드리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한다.

이재화 보살의 봉사모습을 보고 목욕 봉사에 동참하게 된 이해경(47) 보살은 "봉사하면서 집안 어른들 뵈는 마음가짐도 봉사 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멋쩍게 웃는다.

진각종 행원심인당 소속 신도 최혜경(38) 보살은 "내가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을 뿐"이라며 두 '행님' 지켜세우기에 바쁘다.

이들이 힘겹게 목욕을 시켜드려도 할머니들은 고맙다는 표현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맑은 하지 않아도 목욕봉사팀은 알고 있다. 할머니들이 목요일마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김강진 기자

### 이동식 변기와 목욕대 후원해 주세요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에서는 치매 할머니들을 위한 이동식 변기가 필요하다. 할머니들이 몇 번의 훈련을 통해 손쉽게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욕봉사팀은 "할머니들을 제대로 씻겨드릴 수 있도록 목욕대가 갖춰지면 좋을 것 같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02)914-8556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범보시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자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 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중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중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세요.

## 여시아문 창립 11주년 특별 이벤트

"창립 11주년 특별 이벤트 속에 한번 빠져봅시다~!!"

- 행사 기간: 2005년 8월 17일 ~ 8월 31일 (2주간)

- 1 **11주년 기념, 11%의 특별할인!**  
- 여시아문에서 판매하는 모든 도서를 11%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였던 도서까지 이번 기간을 통해 모두를 구입하는 기회맞이하세요. (단, 발행일 기준 1년 미만은 10%할인)
- 2 **11번째의 행운을 잡아라!**  
- 행사기간내에 매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행운의 11번째 고객에게는 여시아문 출판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 3 **나도 여시아문도 11년!**  
- 여시아문카페나 이메일을 통하여 여시아문과 함께 했던 에피소드나 얽힌 사연, 또는 도서 감상평을 써주세요. 총 11분을 선정하여 여시아문닷컴에서 사용 가능한 사이버 도서상품권(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 4 **1+1 행사**  
- 행사기간 동안에 여시아문 회원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두 분 모두에게 평생 여시아문에서 도서 구입시 10%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회원자격을 드립니다. (기존 회원이 아니라더라도 두 명이 동시에 가입할 경우도 해당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을 참조하세요.

여시아문 <http://www.yosiamun.com>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02\_2004\_8220 팩스주문: 02\_737\_0696